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THE WEALTH GUIDE

2026 Vol.4



Part.2 자산 이전

투자의 시대, 퇴직연금도 챙기셨나요



투자 시대, 퇴직연금도 챙기셨나요

한화생명 정하나 수석연구원

arihana@hanwha.com

(작성일 : 202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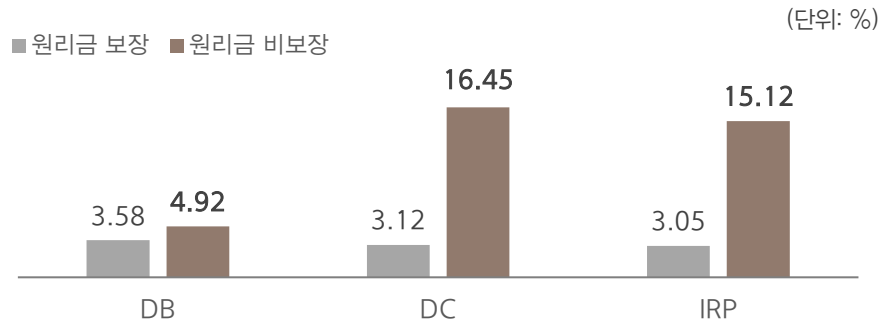
Summary

- 증시 활황 속 퇴직연금 또한 운용 전략의 중요성 증대, 최근 DC·IRP 실적배당형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 실현 및 자금 유입
- 개인 임금상승률 및 투자 역량 등 고려한 DB·DC 선택이 필요하며, 세액공제·과세이연 효과 갖춘 IRP 운용시 리밸런싱 기능 유효
- 퇴직연금 절세의 완성은 수령으로, 연금으로·장기간 수령 유리하며 절세 효과 극대화 위한 인출 계획 설정 필요

투자가 필수인 시대, 퇴직연금 수익률도 챙기셨나요?

- 2025년부터 본격화된 증시 활황이 2026년 1분기에도 지속되며, 일부 개인의 경우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는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쌓이는 큰 자산’ 퇴직연금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 많음.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의 큰 축**으로, 장기간 적립·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 규모가 크게 달라짐.
- '25.4분기 기준 실적배당형(원리금 비보장) 최근 1년 수익률은 DB형 4.92%, DC형 16.45%, IRP 15.12%로 원리금 보장 3~4% 대비 최대 약 5배 높음.

퇴직연금 유형별 최근 1년 수익률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2025.4Q, 적립금 가중평균 수익률

퇴직연금 규모 총 500조원 육박 DC · IRP 실적배당형 중심 증가

- **2025년말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496.8조원으로**, 2024년말 대비 약 +19.7%(81.6조) 증가. 유형별로 DB형은 +6.7%(14.3조) 증가한 데 비해, DC형 +20.3%(23.1조), IRP +50.9%(44.1조) 등 **실적배당형 중심 증가**
- 이는 증시 상승기 실적배당형으로의 자금 유입과 운용수익률 제고가 맞물린 영향. 특히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IRP 계좌에서 원리금 비보장형을 선택해 ETF나 펀드 등 투자 비중을 확대하려는 가입자 증가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4.4Q	'25.4Q	증감액	증감률
퇴직연금 계	415.2	496.8	+81.6	+19.7%
DB형	214.6	228.9	+14.3	+6.7%
원리금 보장	205.0	213.5	+8.5	+4.1%
원리금 비보장	9.6	15.4	+5.9	+61.5%
DC형	113.9	137.0	+23.1	+20.3%
원리금 보장	91.4	103.0	+11.6	+12.7%
원리금 비보장	22.5	34.0	+11.5	+51.1%
IRP	86.7	130.9	+44.1	+50.9%
원리금 보장	66.5	88.5	+22.0	+33.2%
원리금 비보장	20.3	42.3	+22.1	+109.0%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어떤 퇴직연금이 유리할까? DB · DC 선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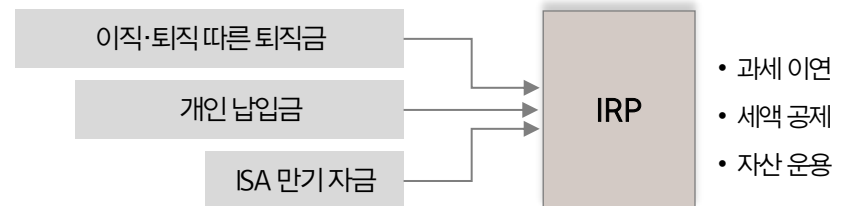
- 회사에서 적립되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뉩**. DB형은 퇴직시 수령액이 확정되므로 자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DC형은 적립금의 개인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자산 증대·감소 가능
-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근속 예상되는 경우 퇴직 직전 높은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DB형이 유리하나, 임금 피크제 진입을 앞두고거나 적극적인 투자로 초과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DC형 전환 유리
- DB형에서 DC형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DC형에서 DB형으로의 역전환은 불가능하므로 **생애 주기와 직장 안정성 등 고려한 의사 결정 필요**

퇴직연금 제도별 주요 특징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 기준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회사의 정기 납입금 (연봉의 1/12) + 개인 운용수익	퇴직금 의무 이전분+ 개인 추가 납입금
운용 주체	사용자(회사) 주도	근로자(개인) 주도	근로자(개인) 주도
주요 특징	퇴직시 수령액 확정 통한 자산 안정성 확보	직접 운용에 따른 퇴직자산 증대 기회	연간 세액공제 혜택, 퇴직시 의무가입

IRP 세액 공제 & 과세 이연 효과로 세후 수익률 제고

- 회사에서 가입한 DB·DC뿐 아니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통해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IRP를 포함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최대한도는 1,800만원이며, IRP 계좌는 운용수익에 중도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과세 이연**됨. 장기 운용 시 수익의 전액 재투자 따른 복리효과 크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 적용
- **IRP의 최대 장점은 절세 혜택**으로, IRP 세액공제 한도 연간 900만원 내 개인 납입액에 대해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를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함. 연 900만원 납입시 148.5만원(16.5%) 또는 118.8만원(13.2%)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IRP 세액공제 한도액 900만원에는 연금저축 600만원이 포함되며, ISA 만기자금을 만기 60일 이내에 IRP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되므로, 당해 연도 절세 혜택 극대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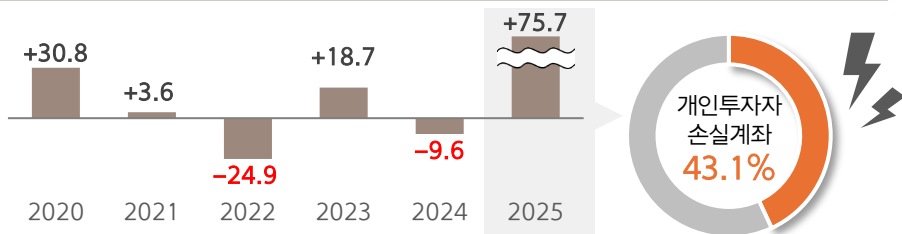


* 퇴직소득 및 ISA 전환금액은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미합산
* IRP 계좌는 복수 개설 가능하므로, 중도해지 계획 있다면 별도 계좌 유리

실적배당형 최근 성과 좋지만 장기 운용 특성상 투자 타이밍 어려워

- 퇴직연금 가입자는 초기 설정 이후 포트폴리오를 방치하는 경향이 큰데, 적기 리밸런싱 기회를 놓쳐 장기 복리효과 저해될 수 있음. '23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되었으나, '25년 기준 디폴트옵션 가입자 79%가 여전히 수익률 3% 미만의 원리금 보장 중심 안정형 상품에 편중
-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운용 시 시장 상황에 따라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은 평생에 걸쳐 운용되는 자산인 만큼 장기 안정성도 중요
- 개인이 **직접 주식이나 ETF를 운용할 경우, 매매 타이밍을 결정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 및 투자 전문성 부족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위험** 상존. KOSPI 연간 수익률 변동성 높으며, 유래 없는 상승장을 기록한 2025년(연간 +75.7%)에도, 개인투자자 계좌 43.1%는 손실 기록

KOSPI 연간 수익률 · 개인 투자자 현황 (단위: %)



* (좌) KOSPI 수익률: 전년말 종가 대비 연말 증가(우) 자료: NH투자증권, '25.12월말 303만개 개인 주식계좌 조사

직접 운용 어렵다면 리밸런싱 돕는 펀드·서비스 활용해도

-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운용 시 장기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TDF의 경우** 가입자의 성향에 맞춰 **은퇴 시점(Target Date)이 가까워지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자동 조절**하며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함. 국민연금 수준의 자산배분 운용을 희망할 경우, **주요 연기금 등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종하는 밸런스드펀드** 상품 유효
- 퇴직연금 운용을 직접 챙기고 싶지만 자주 들여다보기 어렵다면, 일정기간 운용 지시가 없을 때 사전 지정한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디폴트 옵션** 병행. **AI 리밸런싱 서비스**는 시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입자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지원



TDF

생애주기맞춤 자산배분
투자 한도 우대



연기금 추종 펀드

주요 연기금 P/F 추종
장기 중위험/중수익 목표



AI 리밸런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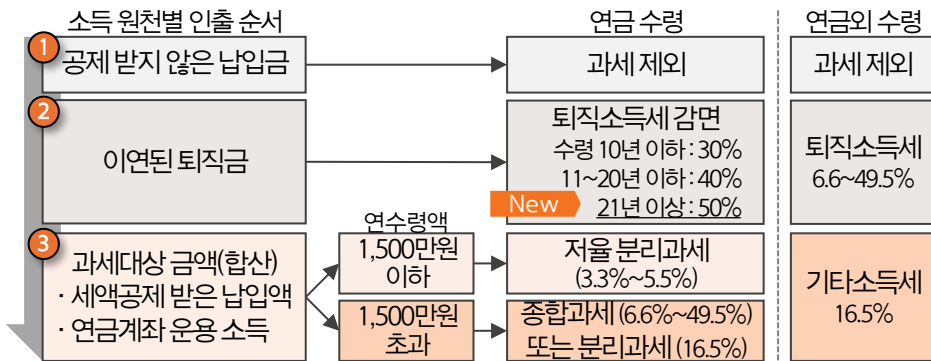
AI 활용 투자성향맞춤
최적 포트폴리오 관리

- 더 나은 운용 인프라와 서비스를 갖춘 금융사로 이동하고 싶다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통해 보유 상품 매도 없이 이전 가능. 단, 이전 받는 금융사에 동일 상품이 없어 현금 이전할 경우, 현금화 과정에서 수수료 및 매매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유의

퇴직연금 절세의 완성 : 인출 순서와 수령액 한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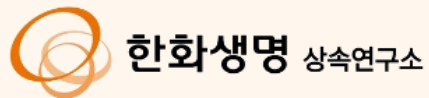
- 55세 이후 퇴직연금 인출 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부담이 적은 것부터 먼저 인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먼저 ①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과세 제외)** 부터 인출되며, 이후 인출되는 자원별 과세 체계가 상이하므로 절세 효과 극대화 위한 계획 설정 필요
- ② 퇴직소득 원금 수령시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55세 이후 연금 방식으로 나누어 수령하면 감면되며, 특히 **2026년부터 50% 감면구간(21년 이상)이 신설**되어 절세 혜택 확대됨. 수령연차에 따라 감면율이 높아지므로, 적은 금액이라도 매년 수령 받으면 노후 필요자금 확대 수령시 더 큰 감면을 적용

연금소득 원천별 적용 세제



*자료: 금융감독원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2026년 세제 반영

- ③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연금계좌 운용소득 수령 단계에서는 저율의 **연금소득세 적용 위한 연 1,500만원 이하 수령액 관리가 핵심**. 연금소득세는 수령나이에 따라 5.5%(60대 이하), 4.4%(70대), 3.3%(80대 이상)으로 과세되며, **종신형으로 수령시 연령과 무관하게 3.3% 적용**
- 만약 연 1,5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면, 수령연금 전체금액에 대해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세 16.5%) 중 선택하여 과세되므로 유의. 1,500만원 한도에는 IRP 및 세제적격 사적연금(연금저축 펀드·보험) 수령액이 포함되며,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및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수령액은 포함되지 않음.
- 한편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승계할 수 있음**. 계좌 해지 시 계약자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해지’로 인정되어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자원별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연금 수령연차에 따른 퇴직소득세 감면 및 피상속인 나이 따른 연금소득세(3.3%~5.5%) 적용. **연금계좌 승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가입기간 및 수령연차를 이어받아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및 연금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배우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필요할 때 적절



필수 안내사항

-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한화생명보험(주)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주)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주)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